

# '태어나길 잘했어' 국내외 영화제 진출

전주영상위 제작지원작으로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 경쟁부문 진출

(사)전주영상위원회의 2019 장편영화 제작지원작이자 2020 전주 영화마케팅 지원작인 '태어나길 잘했어'가 오는 3월 5일 개최되는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태어나길 잘했어'는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 비전부문, 광주여성영화제 개막작,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 부문 등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영화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작품이다. 올 하반기 전국 개봉을 앞둔 '태어나길 잘했어'의 국내외 영화제 진출을 두고 지역의 영화인들은 다양한 제작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전북독립영화협회의 박영완 이사장은 "'태어나길 잘했어'의 국내외 영화제 진출은 한동안 제작되지 못했던 지역장편영화가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지역 인프라의 활성화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고 전했다.

전주 출신의 최진영 감독이 연출하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100% 촬영된 장편영화 '태어나길 잘했어'는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주인공 '춘희'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독립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미장센과 유머로 그려낸 유쾌한 판타지 영화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전북독립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영화 '한강에게'의 배우 강진아가 출연해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최진영 감독은 단편영화 '반차', '뽀(2017)', '연화궁' 등으로 그 연출력을 인정받았고 장편영화 '가장환하고따뜻한'으로 전북독립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태어나길 잘했어'는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19 장편영화제작 지원 사업 결과작으로, 2019년 12월 촬영을 시작해 2020년 제작을 완료했다.

/장은성 기자



(사)전주영상위원회의 2019 장편영화 제작지원작이자 2020 전주 영화마케팅 지원작인 '태어나길 잘했어'가 오는 3월 5일 개최되는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다.



##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 펼쳐

정읍문화원, 역사 관련 전문가·문화원 관계자 8명 참여

정읍문화원(원장 김영수)은 지난 20~21일까지 2일간 역사 관련 전문가들과 문화원 관계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정읍의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祿, 1537~1600) 두 선비가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가슴을 이르고 62계 짝에 달하는 실록과 어진을 경기전에서 내장산 응골까지 옮긴 것을 재현해보는 행사다.

조선왕조실록이 이안됐던 피난길을 더듬어 찾아 굽고와 태인면을 지나 정읍 내장산 코스로 이어지는 60km를 걸었다.

참여자들은 오늘날 국가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하는 세계기록 문화유산을 지켜냈던 지역 선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지역적 자

긍심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한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개인의 노력으로 국가의 문화재를 지킨 첫 사례이다.

이를 기념해 정부는 지난 2018년 조선왕조실록을 정읍으로 옮긴 날인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문화재 지킴이 날' 첫 번째 기념식이 정읍 내장산에서 개최됐다.

정읍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안길 걷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를 계기로 정읍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향토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자신만의 가구 만들며 목공예 매력에 '퐁당~'

고창군·전북대 한옥건축기술양성사업단, 고창군청 공무원 50여명 대상 '신바람 한옥 목공체험교육' 진행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목공예를 배울 수 있어 참 좋아요."

"나무의 향과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지난 20일 고창군 전북대고창캠퍼스 한옥실습실. 향기로운 원목과 톱밥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다. 한쪽에선 열감을 펼치는 교수진과 수강생들이 나무의 매력에 푹 빠져서 손으로 계속 다듬으면서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어 간다.

고창군이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양성사업단과 함께 지난 19~20일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실습실에서 고창군청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신바람 한옥 목공체험교육'을 열었다.

첫째날은 한옥의 이해, 한옥의 미, 한옥의 특성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이 실시됐다. 둘째날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좌탁 1점을 손수 제작했다. 참가자들은 한옥·목공예를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고, 실제 생활 속 가구를 제작하며 목공예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손으로 깎아내고 다듬고 톱질을 하는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계로 톱막 만들어 내는 것보다 힘도 더 들지만, 애착이 가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 더 뿌듯했다.

전북대 고창캠퍼스는 최고 수준의 한옥건



고창군이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양성사업단과 함께 지난 19~20일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실습실에서 고창군청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신바람 한옥 목공체험교육'을 열었다.

축실습장을 설치해 한옥기능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 국내 유일한 한옥전공이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옥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양과목으로 '한옥개론'을 개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 교육을 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에 전국 최고수준의 목공 기자재와 교수진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며 "앞으로도 전북대 한옥건축기술양성사업단과 협의해 지역 청소년, 여성, 은퇴자 등 맞춤형 목공예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부채연구소 '선자청', 착한가게 운동 동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동장 최희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호정)는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약속한 중앙동 '선자청(선자청 무형문화재 제10호 박계호)'을 찾아 착한가게 현관 전담식을 가졌다.

선자청은 옛 선조들의 재현 합죽선, 황칠, 옷칠, 어피, 대모, 왕실 부채 등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부채를 제작해 전통을 이어가는 전주부채연구소다.

착한가게 후원 업체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모금된 후원금은 긴급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난방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박계호 선자장은 "'착한가게'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최희석 중앙동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정기 후원에 참여하는 '선자청'에 감사드리며, 착한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관내 저



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상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